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5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5월 22일 (음력 4월 25일) 월요일

희망의 달 **지방선거 D-9**

미래 유권자의 선택 ?

5·31 지방선거를 10일 앞둔 21일 광주·전남지역 각 선거구별로 일제히 선거 벽보가 나붙었다. 미래의 유권자인 어린이들이 선거벽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31 선거정국 대파란

박근혜 대표 서울 유세 지원 중 피습
정치권 돌발 변수 파장에 촉각 곤두

5·31 지방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 선거 정국이 대파란을 맞고 있다. 정치권은 일제히 철저한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 직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모(50·인천시 남구 학익동)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치권 파장 촉각**=여야 각 당은 사건발생 직후 즉각 논평을 내고 박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나라당은 20, 21일 이틀간 긴급 최고위원 및 비상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배후규명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김학원 최고위원을 대표로 하는 '정치테러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용납할 수 없는 선거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철저한 수사와 배후세력 엄단을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건 당일 보고를 받고 "테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중간 수사 결과**=박 대표 피습 사건 수사본부장인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씨는 경찰에서 "민주주의가 희석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5년 가까이 실형을 살았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도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에 혼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과 8범으로 14년4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지씨는 지병을 앓고 있고 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며, 가족으로는 치매 증세를 보이는 노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세현장 연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지씨와 함께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박모(52)씨는 2004년 3월부터 열리우리당에 정기적으로 당비를 낸 기간당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씨와 박씨가 아직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 피습 순간**=지난 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장에 도착한 박 대표가 지지연설을 하려고 연단에 오르려는 순간 청중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지씨가 박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 왼손에 들고 있던 15㎝ 길이의 문구용 커터칼로 박 대표의 오른쪽 뺨을 그었다.

곧이어 박모(52)씨와 또 다른 한 명이 합세해 박 대표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박 대표는 피습 직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2시간동안 60여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검경 합수부 설치 본격 수사

대검찰청 공안부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규명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경 합수부 설치는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가 법무·행자부 장관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천정배 법무장관도 검경 합수부를 설치해 범행동기와 배후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검사장)을 수사본부장, 곽규홍 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검찰측 수사반장 겸 주임검사,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경찰측 수사반장으로 한 검경 합수부를 구성했다.

검경 합수부는 사건 현장에서 붙잡혀 서대문경찰서로 인계된 지모씨 등 2명의 신병을 21일 오후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으며 참고인 조사를 비롯한 관련자 소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일부 후보 토론회 기피

22곳 중 6곳 파행…"검증 기회 박탈" 비난

5·31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시장·군수 후보들이 정책토론회를 기피하면서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운동 문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회 이상 대담 및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참가가 의무화된 초청 후보는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소속 후보 ▲직전 선거에서 전국 3%이상 득표 정당 소속 후보 ▲직전 선거에서 10%이상 득표 후보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21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가 무산되거나 일부 후보가 빠진 채 파행 실시된 곳은 22개 기초단체 중 6개 지역이나 된다.

지난 19일 실시된 장흥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현직 군수인 무소속 김인규 후보가 참가를 거부, 열린우리당 김점중, 민주당 김 성, 무소속 백광준 후보 3명만 참석해 파행 실시됐다. 또 같은 날 실시 예정이었던 강진군수 후보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윤욱윤 후보의 불참으로 토론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앞서 18일 실시된 완도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박현호 후보가 불참해 열린우리당 김종식, 한나라당 홍종기 두 후보만 토론회를 실시했다.

22일 오전 열릴 예정인 화순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는 민주당 전형준 후보의 불참 선언으로 무소속 이영남 후보 홀로 토론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4일 신안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도 열린우리당 김수용 후보가 참가를 거부, 민주당 김청수 후보와 무소속 고길호 후보 2명이 토론회를 펼친다. 또 오는 26일 실시 예정인 보성군수 후보 토론회는 현 군수인 무소속 하승완 후보의 불참으로 합동방송연설로 대체됐다.

이처럼 토론회 참가 거부가 잇따르는 것은 일부 후보의 경우 토론회 참가가 오히려 선거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교적 유리한 후보의 경우 상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칙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전략적으로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토론회 불참 행태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우리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社 告

치과야 놀자 제2회 구강 강좌

광주일보·광주시치과의사회 공동

5월31일 롯데백화점서

광주일보사와 광주시 치과의사회는 '치과야 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 구강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2회 강좌 주제는 '구강질환 예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입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코골이와 이같이,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담도 해 드립니다.

강좌 내용은 오는 6월 6일(화)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참가자에게는 무료 구강검진이 시행되며, 치약과 칫솔을 나눠 드립니다.

■주 제 : 구강질환 예방을 통해 행복한 삶을
■강 사 : 김병국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 치과대 졸업
-전남대 대학원 치의학 박사
-대한구강내과학회(평이사)
-대한 레이저치의학회(국제이사)

■일 시 : 5월 31일(수) 오후 3시30분
■장 소 : 광주시 동구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다목적홀 (광주은행 본점 빌딩 5층)

주최 : 光州日報社·광주시치과의사회

후원 :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선대 치과대학, 조선대 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치과진료처, 롯데백화점

■문 의 : 광주시 치과의사회(062)675-6735~6